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삼월이면 봄의 꽃들은 거의 꽃망울을 터뜨린다. 이제 제주는 노란 유채꽃들이 자연의 왕성한 삶을 우리들께 알려주리라. 제주의 매화는 벌써 지고 콩알 크기의 열매를 맺고 있다. 며칠 비 그친 후 풍경이 맑고 시원했지만 저녁이 되면서 흐려지기도 했고 바람이 거세지기도 했다. 삼월 말인데도 온통 흐린 때문인지 문뜩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으로 무릎이 며 허리까지도 서늘하다. 제주의 봄은 참 변덕스럽다. 뒷밭과 뒤뜰의 복숭아나무와 배나무도 곧 꽃이 만개할 것 같은데 이런 변덕에도 아랑곳

이 봄에 항상성(恒常性)에 기대어

하지 않는다. 봄의 꽃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인류가 살아온 지난 역사의 삶을 생각하게 된다. 까마득하게 여기던 구석기시대라고 해도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진화의 과정이란 기준으로 보면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만 해도 짐승의 털로 간단한 옷이아 만들어 입었겠지만 요즘처럼 두터운 외투를 입지 않아도 충분히 삼월의 봄을 즐겼으리란 생각이 든다. 그때에도 사계절은 뚜렷했을 터이므로,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그토록 자연을 정복하고 극복해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자연과 멀어지면서 극도로 나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이란 말이 있다. 생명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에 대응해 내부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조절 과정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추위나

더위에 대응하는 인간 본연의 능력이란 AI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시스템이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부를 지켜내는 반응 체계는 인류를 존속하게 하는 힘이다. 문득 괜히 서늘하다는 생각에 항상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걱정이 될 정도다. 어디 나 뿐일까. 오늘날 우리 인류는 자연에 반하는 문명으로 그토록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지켜온 이 항상성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람 많은 제주는 4월도 춥다. 그리고 사월 어느 날부터 민소매를 입어야만 하는 때가 된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핫웃, 그것도 오리털과파카를 입고 있다. 문을 닫고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무릎으로부터 시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른들의 신경통처럼 시큰거리기도 해서 담요를 덮고 있어야 한다. 요즘 오십 정도의 나이는 시골에서 청년이라고 하지 않는가. 나이만을 탓할 게 아니

라 항상성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 항상성은 육체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정신세계도 이 항상성으로 평형을 찾아가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리 인류는 진화의 과정을 추월하는 지나치게 문명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요즘 코로나 문제며 선거와 관련된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들의 질주를 보면서 지금 인류의 문제며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16세기 스페인의 피사로 가문의 중미 잉카문명의 파괴와 원주민 학살에서 단지 천연두라는 바이러스만을 생각할 것은 아니다. 정신세계에 작용했던 항상성의 불균형을 기억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시민들이 '나'와 '나'를 떠나 '함께'를 나누고 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을 확신하게 된다.

사설

총선 후보 토론회,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4·15 총선이 본격화했습니다. 출전 선수들이 정해지면서 총선 없는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잘 골라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후보들이 비대면 선거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후보들은 짧은 시간에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TV토론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과 제주 3개 선거구에 총 15명이 등록했습니다. 선거구별로 보면 제주시갑 7명, 제주시을 5명, 서귀포시 3명입니다. 여야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3석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원내 1당을 탈환해 보수정권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기존 선거

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선거운동 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각 후보들이 유권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과 공약 발표 등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자칫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마저 높아졌습니다. 물론 차선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총선 후보 TV토론회가 그것입니다. 한라일보·JIBS·제민일보 언론 3사가 31일부터 2일까지 선거구별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후보들은 그동안 준비한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유권자들은 TV토론회를 통해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선량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도 TV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열린마당

차별과 편견, 파란 불빛에 동참하자



홍 주 연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팀장

4월 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이다. 유엔 사상 최초로 만장일치로 정한 세계적인 의미 있는 날이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Light Up Blue' (파란불을 켜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 빛을 건물 외벽 등에 밝히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프랑스의 에펠탑과 미국의 록펠러 센터,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브라질의 예수상 등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해마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같은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물 외벽에 파란불을 켜는 캠페인

페인은 물론, 자폐인 부모와 가족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파란색 계통의 정장과 머플러를 사진으로 올리거나 자신의 페이스북 배경화면을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한다. 자폐성 장애아들은 인지나 의사소통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으며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걸림돌로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곤 한다. 발달장애를 둔 부모와 아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자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장애처럼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자칫 우리의 이웃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4월 2일 자폐인의 날을 기억하며 내 생활 속에서 파란색 이미지를 드러내는 퍼포먼스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고병수 후보 특새 저격수 역할 주목

다양한 주제 꺼내들며 공세
○...31일 진행된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공동주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정의당 고병수 후보의 특새 저격수 역할에 눈길.
이날 고 후보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토론 공격 대상에서 벗겨졌지만 위성정당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꺼내들며 공세.
또 자신의 공약인 지역화폐 도입 등에 대한 경쟁 후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특새 공약 홍보 효과도 이끌어내 주목. 오은지기자
입국자 자가격리 사전교육
○...서귀포시가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의무 격리를 앞두고 전담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등 철저한 대비.
사전 교육은 강화된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지침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법 매뉴얼과 이용방법 교육.

격리 대상자 이탈 시 조치사항 등 분야별 세부사항 중심으로 진행.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격리 대상자들의 생활불편사항에도 적극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미숙기자
병해충 방제 드론 지원 호응
○...한림농협이 조합원들의 영농비용 절감 등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지원을 추진.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많은 인건비를 지불해 인부를 고용하는 형편인데, 이번 지원으로 저렴한 비용에 농가들이 적기에 농약 방제를 할 수 있어 호응.
차성준 조합장은 "농산물 재배 기술 향상과 생산·유통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며, 농업인 조합원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금탁기자

제주 인구위기 총체적 대응 나서야

제주 인구위기가 저출산·고령화에 이은 유입인구 감소로 심각합니다. 결혼·출산 가치관 변화, 수명연장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4509명으로 2018년 4781명보다 줄었습니다. 2017년 5037명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가파릅니다. 또 최근 3년간 제주지역의 전입인구에서 전출자를 뺀 순이동 인구는 2017년 1만4005명, 2018년 8853명, 2019년 2936명을 보일만큼 급감했습니다. 작년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인구 67만명을 감안하면 70만명 시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과거 65만명 내외 수준으로 내내 주민등록인구 유지하는 필수적입니다. 현 추세대로 제주인구의 가파른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지역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농어촌은 소멸되는 등 암울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에 총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발표된 제주도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저출산, 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으로 불거진 인구위기 대응책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조치입니다. 저출산 대응으로 둘째아를 갖는 가정에 추가·교육·교통비 등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전국 최초로 초·중고 인구교육 정규과정 신설, 공무원 교육시 인구교육 필수교육과목 개설 등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비혼·저출산 등의 가치관 변화에 장기적이면서 근본적 문제해결에 대응한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인구정책은 청년 일자리, 출산 지원, 고령인구 활용, 정주여건 조성 등 여러 대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단계적·전체적으로 시행될 때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제주의 인구정책이 효과를 내도록 더 세밀한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 고
고창범·광범(제주은행 노형금웅센터 부지점장) 어머니 여산송씨 일심(향년 79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31일 00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4월 1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4월 2일(목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S-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고창범
고광범 며느리 김현숙
딸 고유경 사 위 강승국
손 자 고 을 외손자 강세준
고민혁 강원준
※ 연락처 : 고창범 010-6777-7115
고광범 010-3694-5310

부 고
김동범(종합건축사사무소 세하 대표) 어머니 전주이씨 옥양(향년 92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30일 18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4월 1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4월 2일(목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김동범 며느리 최혜경
낙경 최규영
손 자 김한섭
한음
현규
현석
※ 연락처 : 김동범 010-3362-819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재식(프란치스코, 향년 8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4월 1일
부인 이정자
아들 양경필(오빠) 며느리 현옥열(아들)
경호 김은희
경택 홍은숙(배우자)
딸 양경희 사 위 오범석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원심(향년 8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4월 1일
남편 신홍식
아들 신덕일 며느리 홍영미
태일 장미경
딸 신숙 사 위 김재웅
신영 현창부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곡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